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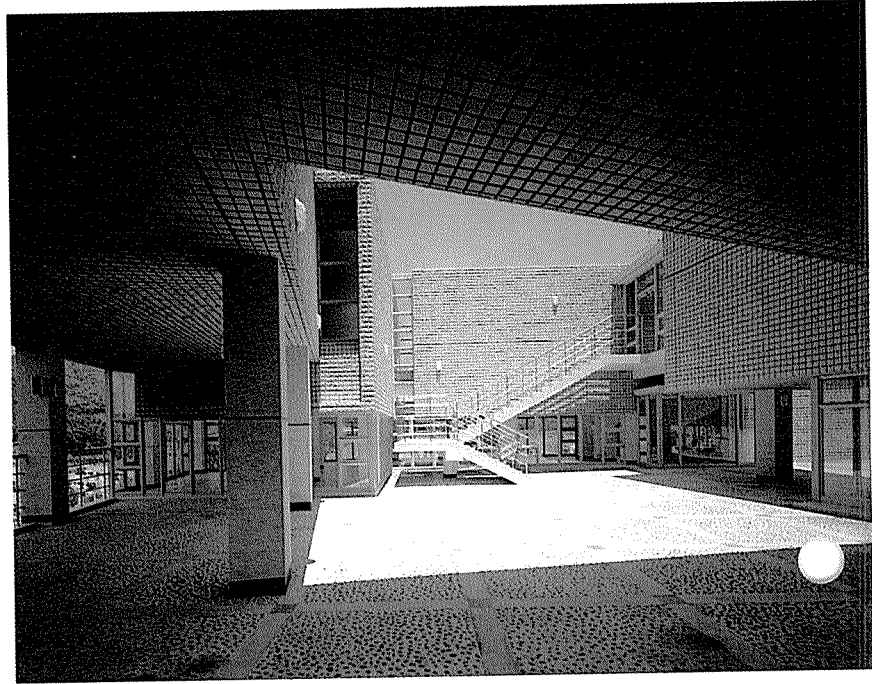
부산 광복기념관

Pusan Independence Hall

정연근 / 건축사사무소 토원
 Designed by Jeong Yeon-Keun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99-11번지
대지면적	772.69㎡
건축면적	369.79㎡
연면적	832.7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석기질 외장타일, 드라이비트 코트
설계담당	한창훈, 조현철, 김범수, 박미영
시공자	(주)한주공영(정태식, 장수석)
발주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각과 건축’, ‘일상의 기념비’ 등등 요란한 구호 뒤에 숨어 있던 그림자는 전형의 탈피였다. 건축으로부터의 탈피, 기념관의 위엄으로부터의 탈피, 열림과 닫힘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틈새를 노리는 전략. 이리 저리 굴러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다. 처음 거칠게 시작된 틈새의 공략은 현실적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절충을 거쳐 다듬어 졌다. 왜소한 규모에서 단순해진 형상은 조각에서 시작되었지만 다소 건축적(?)으로 변했다.

마당은 열린 듯 닫혀 있고 튜브의 그림자가 명암을 가른다. 공원의 산책로에 열려 있어 시민들이 자유로이 나든다. 사무공간이 개폐가 마당의 표정을 변화시킨다. 비어 있는 마당에 조만간 광복 인사들의 흉상이라도 놓여져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튜브 속의 전시공간은 나름대로 빛을 호흡하고 있지만 전시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자질 구레한 문제들을 좀더 명료하게 처리했으면 튜브가 좀 더 가벼워졌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